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脈死候》에 關한 研究

정용래 · 황민섭 · 조현석 · 이승덕 · 김경호 · 윤종화 · 김갑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Research of Yinyanmaisihou(陰陽脈死候) in medical books from Mawangdui Han dynasty tomb

Jung Yong-rae, Hwang Min-seob, Jo Hyun-seog, Lee Seong-deog,
Kim Kyung-ho, Yoon Jong-hwa and Kim Gap-sung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ollege, Dongguk University

Object : In this thesis we researched the transformation of five symptoms of final life stage from 《Sumun(素問)》, 《Yingshu(靈樞)》 and 《Nanjing(難經)》 and pulse diagnosis method.

Method : We studied medical books from Mawangdui Han dynasty tomb

Results and Conclusion :

1. The symptoms of final life stage according to Yinyanmaisihou(陰陽脈死候) is suggested by observation of symptoms introducing Yinyan five-elements theory.
2. The symptoms of final life stage according to Yinyanmaisihou(陰陽脈死候) and "Qijue(氣絕)" from 《Lingshu(靈樞) · Jingmai(經脈)》 made use of twelve meridian bian(遍) diagnosis method and 《Lingshu(靈樞) · Zongshi(終始)》, 《Sumun(素問) · Zhenyaojingzhonglun(診要經終論)》 made use of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diagnosis method.

· 접수 : 2004년 3월 15일 · 수정 : 2004년 3월 20일 · 채택 : 2004년 3월 22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chol.com

Afterward oriental medical biology which suggests agreement between outside and inside symptoms needs to be examined by use of science and medical theory to apply medical treatment.

Key words: Yinyanmaisihou(陰陽脈死候), Yinyan five-elements theory, Qijue(氣絕), twelve meridian bian(遍) diagnosis method,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diagnosis method

I. 緒 論

近年의 長沙 馬王堆 漢代 古墳 (B.C 168)에서 發掘된 竹簡, 木簡 및 帛書에 記載되어 있는 文獻은 先秦時代의 醫學水準을 볼 수 있는 《素問》, 《靈樞》 以前의 醫學에 對한 内容으로 《漢書藝文誌·方技略》의 醫論·經方·神僊 및 房中의 書籍分類에 附合하는 醫籍이다¹⁻²⁾.

出土된 十四種의 醫籍 中에서 醫論에 該當하는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陰陽脈死候》, 經方에 該當하는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神僊에 該當하는 《導引圖》, 《却穀食氣》, 房中에 該當하는 《合陰陽》, 《胎產書》 등은 古代醫學의 모든 分野를 綱羅하고 있다²⁻³⁾.

특히 診斷書인 《脈法》에는 《足臂》 《陰陽》의 痘證을 診斷하는 相脈의 方法과 治療하는 導脈 및 啓脈의 方法이 論述되어 있고, 《陰陽脈死候》에는 經氣終絕에 依한 五種類의 死證이 既述되어 있다⁴⁾. 그리고 《素問》, 《靈樞》 및 《難經》의 여러 篇에서 《陰陽脈死候》의 五種類 死證이 演變된 것으로 보이는 經氣終絕의 證候가 있다.

한편 《陰陽脈死候》에 關한 研究로 《馬王堆醫書考注⁴⁾》, 《馬王堆古醫書考釋⁵⁾》, 《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⁶⁾》 등의 註釋書는 있지만, 《陰陽脈死候》의 内容 中에서 五死證과 關聯한 氣, 血, 骨, 肉, 筋과 五臟의 連繫가 臟象理論의 始原이 된다는 觀點에서 研究한 論文은 볼 수 없었다.

이에 論者는 《陰陽脈死候》各 條門의 内容을 考察하고 《素問》 《靈樞》 및 《難經》에서 聯關되는 여러 篇을 參照하여 《陰陽脈死候》의 三陰·三陽脈 死證의 診斷 및 豐候와 臟象學說의 形成淵源에 關하여 研究한 바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합니다.

II. 研究方法

《陰陽脈死候》가 出土된 古典의 原本은 二種類가 있으며, 馬王堆 漢墓에서 나온 帛書가 甲本이며, 張家山 漢墓에서 나온 《脈書》 중에 插入되어 있는 것이 乙本이다. 이 중 乙本이 比較的 잘 保全되어 있다.

本書는 題目이 없고 그 内容에 根據하여 《陰陽脈死候》으로 命名하였다. 三陰脈과 三陽脈의 死亡證候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으며, 三陽

脈의 死候에 “一死” 있고 三陰脈의 死候에는 五種類가 있어 “五死” 한다. 그리고 《陰陽脈死候》에는 養生理論과 脈象에 根據한 治療方針등을 紋述하고 있다.

1) 原文은 《馬王堆古醫書考釋⁵⁾》을 底本으로 하였다.

《足臂十一脈灸經》(이하 《足臂》로 簡稱함),

《陰陽十一脈灸經》(이하 《陰陽》으로 簡稱함),

《靈樞·經脈》(이하 《經脈》으로 簡稱함)

2) 解釋은 《馬王堆古醫書考釋》, 《馬王堆醫書考注⁴⁾》 및 《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⁶⁾》을 參考로 하여 原文에 充實하게 翻譯하여 現在의 意味와 相通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校注는 《馬王堆醫書考釋》, 《馬王堆醫書考注》, 《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 및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⁷⁾》을 中心으로 原文의 意義를 쉽게 把握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原文의 研究

(原文) 凡三陽, 天氣也. 其病唯折骨·裂膚, 一死.

(語釋) 三陽脈은 人體에서 天陽之氣를 象徵한다. 三陽脈의 疾病 중 全身이 심하게 骨折되고 皮膚가 찢어진 것은 死亡證候이다.

(校注) [1] 三陽 - 太陽脈, 少陰脈 및 陽明脈을 말한다.

[2] 天氣 - 넓은 意味에서 陽氣를 말한다.

《素問·生氣通天論》“陽氣者，若天與日，失其所則折壽而不彰。”하였고, 《陰陽應象大論》“積陽爲天，積陰爲地。陰靜陽躁，陽生陰長，陽殺陰藏。陰化氣，陰成形。”하였다.

[3] 也 - 原來 □로 되어 있으며 古代에 □로 쓰였다.

[4] 唯 - 오직 오로지, 獨의 뜻이다.

[5] 折 - 끊어지고 찢어지다. 《玉篇·手部》: “折, 斷也。” 折骨은 즉 骨折이다.

[6] 裂 - 甲本에는 “列”로 되어 있으며, “裂”字의 뜻은 分離, 分裂이다.

[7] 膚 - 乙本에는 빠졌다. 甲本에는 “膚”로 되어 있다. 古代에는 다르게 쓰였다. 膚字는 皮, 肉, 剝離의 뜻이 있다. 예를 들어 《玉篇·肉部》에 “膚, 皮也.” 하였고, 《廣雅·釋器上》에 “肌·膚·肉也.” 하였고, 《廣雅·釋言上》에 “皮·膚, 剝也.” 하였고, 《釋詁上》에 “膚·朴·皮, 離也.” 하였다.

여기서 “裂膚”의 死候는 全身이 심각한 創傷에 의해 살이 잘려지고 찢어지는 것을 말하며, 절대로 寒冷에 의해 四肢手足의 皮膚가 갈라지진 것과 다르다.

(原文) 凡三陰 [1], 地氣 [2] 也. 死脈 [3] 也, 陰病而亂, 則不過十日而死 [4]. 三陰腐爛而主殺 [5].

(語釋) 三陰脈은 人體에서 地氣를 象徵한다. 그 死脈의 證狀은 다음과 같다. 三陰脈의 病證은 縱橫으로 뒤섞이고 어지러운 現象을 나타내면 不過 十日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三陰脈의 病證은 五臟과 胃腸의 實質組織의 病變으로 모두 죽는다.

(校注) [1] 三陰 - 太陰脈, 少陰脈 및 厥陰

脈을 말한다.

[2] 地氣 - 넓은 의미에서 陰氣를 말하며, 《素問·陰陽應象大論》“濁陰爲地”하였다.

[3] 死脈 - 古代醫書 中一般的으로 死亡徵候를 나타내는 脈搏現象을 表現한 것이다. 예로 《素問·平人氣象論》“사람이 一呼와 一吸에 四回以上 動하면 ‘死’ 한다. 脈이 끊어져 이르지 않는 것도 ‘死’ 한다. 드물다가 빠르다가 하는 것도 ‘死’ 한다. …… 사람이 胃氣가 없는 것을 ‘逆’ 하고, 逆하는 者는 죽는다.” 하였고, 同篇에 또한 “死肝脈”·“死肺脈”·“死腎脈” 및 “死脾脈” 등의 死脈名稱이 있다. 《難經·十四經》“一呼六至, 一吸六至, 為死脈也” 하여 死脈類에 屬한다.

[4] 陰病而亂, 則不過十日而死 - 甲本에는 “陰”과 “不”의 二字가 빠져 있고, 乙本에는 “腐臟爛腸而主殺” 뒤에 있다.

[5] 三陰腐臟爛腸而主殺 - 乙本에는 “三陰”的 二字가 빠져 있고, 甲本에는 “腐”가 “부”로 되어 있다. “臟”字는 甲本·乙本에 모두 “臧” 되어 있고, “藏”字는 後世 醫書에는 “臟”으로 紂述되고 簡素化되어 “藏” 한다. 《素問·氣穴論》“藏俞五十八” 하였고, 王冰은 “藏은 五臟을 말한다” 하였다.

“爛”字는 甲本에는 “煉” 되어 있고, 乙本에는 “闌”字로 되어 있다. 煥과 煉·闌은 모두 同音으로 通用하였고, “腐”는 원래 “부” 되어 있고, “爛”字는 뜻이 腐와 같은 즉 腐爛 혹은 煥熟의 意味이며, 腐爛은 腐敗의 뜻이며 “腐臟”은 五臟이 썩어 문드러짐을 말한다. 《說文·火部》“爛, 熟也.” 하였고, “腸”은 大腸과 小腸이며, 煥腸은 胃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말하고, “殺”字는 死亡의 뜻이다.

本文과 《足臂十一脈灸經》“三陰之病亂, 不過十日死”의 内容과 基本적으로 同一하다.

(原文) 凡視死徵 [1], ××五死, 脣反人盈, 則肉先死.

(語釋) 死亡徵候를 診斷할 때는 반드시 五種類의 死候를 가져야 한다. 첫째로 입술이 밖으로 뒤집어지고 입 주위의 人中部位가 脹하면 肉先死의 證狀이다.

(校注) [1] 凡視死徵 - 乙本과 같고, 甲本에는 전부 빠져 있으며, “徵”字의 뜻이 徵兆이고 痕迹이다. “死徵”은 곧 死亡의 證候徵兆이다.

[2] ××五死 - 甲本에는 “五死” 앞에 二字가 빠져 있고, 乙本에는 전부 빠져 있다.

[3] 脣反 - 《靈樞·經脈》과 《難經·二十四難》에는 脣反으로 되어 있고, “反”字는 “翻”이 되어야 意味가 分明하게 된다. ‘脣翻’은 口唇肌肉이 弛緩되어 밖으로 뒤집어지는 形狀이다.

[4] 人盈 - 《靈樞·經脈》“人中滿” 하였고, “人”字는 곧 “人中”을 생략한 것이며, 人中은 곧 鼻와 口部사이의 部位이다.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卷八十》“人中者, 鼻柱之下. 脣之上, 穴名水溝.” 하였고, “盈”과 “滿”字는 같은 뜻으로 “人盈”은 곧 人中盈이며, 《靈樞·經脈》“人中滿”과 같은 뜻이다.

[5] 肉先死 - 乙本과 같다. 甲本에는 “先死”的 二字가 없다.

《靈樞·經脈》·“肉先死”에 關하여 : “足太陰氣絕者則脈不榮肌肉. 脣舌者, 肌肉之本也. 脈不榮則肌肉軟, 肌肉軟則舌萎, 人中滿. 人中滿則脣反. 脣反者肉先死. 甲篤乙死, 木勝土也.” 하였고, 《難經·二十四難》“足太陰氣絕, 則脈不榮其口脣. 口唇者, 肌肉之體也. 脈不營, 則肌肉不滑澤, 則肉滿. 肉滿則脣反. 脣反則肉先死. 甲曰篤, 乙曰死”하였다.

(原文) 齒瘠齒長，則骨先死。

(語釋) 둘째로 잇몸조직이 萎縮되고 이빨이 길어지는 것 같고 老化되고 말라서 憔悴한 것은 骨先死의 證狀이다.

(校注) [1] 齒瘠 - 甲本에는 전부 빠졌다. 乙本에는 “瘠” 이 “齊”로 되어 있다. 瘦은 마르고 야위었다는 意味이며, 잇몸이 萎縮되고 退化되는 病變이다.

[2] 齒長 - 乙本과 같다. 甲本에는 전부 빠졌다. 齒長의 의미는 “長” 字는 古代의 뜻이 老 또는 衰老가 된다. 그러므로 齒長은 마땅히 齒牙가 老化되어 衰退되는 現象으로 《素問·診要經終論》 및 《靈樞·經脈》에는 “齒長” 뒤에 “而垢”의 二字가 있고, 《難經·二十四難》“齒長而枯”하였다.

‘垢’字의 뜻은 汚物, 치꺼기의 뜻이며, 《說文·土部》“垢是濁也。” 하였고, ‘枯’字는 마르고 야위었다는 뜻으로 “垢”·“枯”는 모두 齒牙가 마르고 萎縮되는 형상으로 齒牙의 衰老와 “齒長”的 뜻이 서로 附合됨을 알 수 있다.

[3] 則骨先死 - 乙本과 같다. 甲本에는 “則” 字가 빠져 있다.

《靈樞·經脈》“骨先死”에 關하여 “足少陰氣絕則骨枯，少陰者冬脈也，伏行而濡骨髓者也。故不濡則肉不能著也。骨肉不相親則肉軟却，肉軟却故齒長而垢，髮無澤。髮無澤者，骨先死。戊篤已死，土勝水也。” 하였고, 《難經·二十四難》“足少陰氣絕，卽骨枯，少陰者，冬脈也。伏行而溫于骨髓，故骨髓不溫，卽肉不著骨，骨肉不相親，卽肉濡而却，故齒長而枯，髮無潤澤，無潤澤者骨先死。戊曰篤，己曰死。”하였다.

“齒長而垢”에 對한 解釋하여 王冰은 “足少

陰氣絕則骨不軟，骨硬則斷上宣，故齒長而積垢汙。”(《素問·診要經終論》) 하였고, 馬蒔는 “腎氣絕則骨枯，肉脫，齒槁。”(《素問·診要經終論》) 하였고, 張介賓은 “腎主骨，腎敗則骨敗，故骨根不固，長而垢也。”(《張氏類經·卷十八》) 하였다. 그리고 錢江抽齋는 “腎氣가 이미 끊어지면 骨髓를 營養할 수 없으므로 살이 늘어지고 쭈그러든다. 却은 쭈그러진다는 뜻으로 잇몸의 살이 쭈그러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齒牙가 점점 자라나면서 마르는 것이다. 齒牙가 마르고 色이 潤澤하지 못함을 말한다.”(《靈樞進義·經脈》)하였다.

(原文) 面黑 [1], 目環 [2], 視斜 [3], 則氣先死 [4].

(語釋) 셋째로 얼굴의 顏色이 검은 회색 빛을 띠고 눈을 뜨는 것이 놀란 모양을 하며 눈동자가 斜視가 되는 것은 氣先死의 證狀이다.

(校注) [1]面黑 - 甲本과 같다. 乙本에는 “黑”이 “墨”되어 있고, 《素問·診要經終論》“少陰終者，面黑”(《靈樞·終始》와 同). 《素問·脈解篇》“少陰所謂面黑如地色者，秋氣內奪，故變于血也”하였다.

[2] 目環 - 甲本과 같다. (甲本의 原文을 풀어놓은 文章에서는 假借하여 “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르다). 乙本에는 “環”이 “圜” 되어 있는데 形態가 가까워 잘못 쓰인 것으로 보인다. 《說文·目部》“環，目驚視也。” 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目環系絕”하였고, 王冰은 “環”은 눈을 뜨는 게 놀란 모양과 같은 것이다.”하였다.

[3] 視斜 - “斜”는 甲本에는 “□”로 되어 있고 乙本에는 “雕” 되어 있다. □는 古代의

“衰” 와 같고, 衰는 또 “邪” 의 異體字이다. 衰와 邪는 또한 모두 “斜” 를 假借하여 쓰는데 三字는 上古時代에 音이며, “斜” 字는 또한 왜곡되고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 있고 音과 뜻이 서로 通한다.

[4] 則氣先死 - 甲本과 같다. 乙本에는 “氣” 가 “血”로 잘못되어 있고, 아래 한 문단은 “血” 이 “氣”로 잘못되어 있어 《靈樞·經脈》, 《難經·十四難》에 根據하여 少陰脈의 死候를 고쳤다.

《靈樞·經脈》과 《難經·二十四難》에는 “氣先死” 의 記述은 없고 “毛先死” 만 있고 證狀은 “氣先死” 와 같지 않다. “氣先死” 의 證候는 《素問》과 《靈樞》의 六經終候로 分別되어 나타나고 “面黑” 의 證은 《素問·診要經終論》 “少陰終”的 死候에 나타난다 (《靈樞·終始》同). 그리고 “目環斜視” 의 證은 《診要經終論》 “少陽終”的 死候에 나타난다 (“目環”은 《靈樞·經終》에는 “環” 字가 빠져 있고 “系絕” 되어 있다.).

(原文) 汗出如絲 [1], 傳而不流 [2], 則血先死 [3].

(語釋) 넷째로 全身에 땀이 나는 것이 누에 실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그 性質이 끈끈하여 排泄 後에도 爽快하지 않는 것은 血先死의 證狀이다.

(校注) [1] 汗出如絲 - 絲는 누에고치 실을 가리키며 《說文·系部》 “絲” 字는 누에가 吐한 것이다.

[2] 傳而不流 - 乙本에는 “傳” 字가 “搏” 되어 있으며, 傳字는 붙이다, 附着의 意味이며,

傳는 여기서 ‘불다’ 는 뜻으로 解釋한다.

[3] 則血先死 - 甲本과 같다. 乙本에는 “血” 을 “氣” 字로 잘못 썼다.

《靈樞·經脈》 “手少陰氣絕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血不流則毛色不澤, 故其面黑如漆紫者, 血先死, 王篤癸死, 水勝火也.” 하였고, 《難經·二十四難》 “手少陰氣絕, 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血不流則色澤去, 故面黑如黧. 此血先死. 王日篤, 癸日死.” 하였다.

本文에서 說明한 “汗出如絲, 傳而不流” 는 땀이 끈끈한 결과이며, 《素問·診要經終論》 “太陽之終” 的 死候에 “絕汗內出” 의 證을 王冰은 “絕汗은 땀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구슬과 같아 흐르지 않고 맷혀 있다가 마르는 것이다.” 하였다. 또한 “汗液粘稠, 流而不暢” 하였는데 本文의 死候와는 差異가 있다.

(原文) 舌 [1] 陷, 卵 [2] 摻 [3], 則筋先死 [4].

(語釋) 다섯째로 혀 뒤 부분에 舌 乳頭가 움푹 꺼졌고, 남자의 陰囊이 오그라드는 것은 筋先死의 證狀이다.

(校注) [1] 陷 - 甲本에는 “□” 잘못 되어 있는데 形태가 가까워 생긴 誤謬이다. 乙本에는 “掘”으로 되어 있다. 陷과 掘은 上古時代에 音이며 掘을 假借하여 陷으로 삼는다. ‘陷’ 字는 “아래로 빠지다, 빠져 떨어지다” 的 意味이며, 舌陷은 즉 혀의 筋肉이 萎縮되어 움푹 패이는 證이며, 《素問·診要經終論》, 《靈樞·經脈》 및 《靈樞·終始》 등에 “舌捲” 하였다.

[2] 卵 - 甲本에는 ‘□’ 字로 되어 있고, 乙本에는 “囊” 되어 있다. ‘□’ 字는 卵과 囊으로

부터 생겨났는데 古代에 합쳐진 글이며, ‘囊’字는 囊의 뜻으로 男子의 隱囊(睾丸)을 指稱하며, 《素問·熱病篇》“囊縱, 小腹微下” 하였고, “故煩滿而囊縮.” 같다.

그리고 ‘卵’字는 古代醫書에 또한 隱囊을 指稱하며 《神農本草經·下品》에 豚卵의 藥이 있고, 《本草綱目·卷五十》“牡猪外腎” 하여 “睾丸” 하였고 《靈樞·五色》“男子色在于面王, 為小腹痛, 下為卵痛” 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則舌卷, 卵上縮而終矣” 하였고, 《靈樞·經經》“肝者, 筋之合也. 筋者聚于陰器, 而脈絡于舌本. 故甚則舌卷, 卵上縮也.” 하였고, 《難經·十四難》“筋縮引卵與舌卷.” 하였다.

[3] 卷 - 구부정하다는 뜻이며, 甲本에는 “卷” 으로 되어 있고, 乙本에는 “拳” 으로 되어 있다. 卵卷은 卵縮과 같고, 睾丸이 위로 줄어든 것을 말한다.

[4] 則筋先死 - 甲本에는 “則筋”二字가 떠져 있다.

《靈樞·經脈》“足厥陰氣絕則筋絕. 厥陽者肝脈也. 肝者, 筋之合也. 筋者聚于陰氣, 而脈絡于舌本也. 故脈弗榮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脣青, 舌卷, 卵縮, 則筋先死. 庚篤辛死. 金勝木也.” 하였고, 《難經·二十四難》“足厥陰氣絕則筋縮, 引卵與舌卷. 厥陰者肝脈也. 肝者, 筋之合也. 筋者, 聚于陰器而終於舌本. 故脈不營, 則筋縮急. 筋縮急引卵與舌, 故舌卷卵縮, 此筋先死. 庚日篤, 辛日死.” 하였다.

(原文) 五者徧 [1] 有, 則不活 [2] 矣. 凡 [3] 徵 [4] 五. 一徵見, 先活人 [5].

(語釋) 이상의 五種類의 死候가 同時に 나

타나면 病人은 죽고, 死亡證候에 屬하는 五種類의 徵兆 中에서 一種類의 死亡徵兆가 나타나면 最善을 다하여 治療하여야 한다.

(校注) [1] 徧 - 甲本과 乙本에는 모두 “扁”되어 있다. 徧과 扁은 上古時代에 音이 同音으로 假借해서 通用하였고, 徧은 遍과 同字이다. 徧은 遍의 옛날 字이며 ‘徧’字는 完全 또는 全部의 뜻이다.

[2] 活 - 生存, 生命의 뜻이다.

[3] 凡 - 甲本에는 “凡”字 以下부터 本書의 끝까지 없다. 乙本에 根據한다.

[4] 徵 - 乙本에는 “征” 되어 있다. 征과 徵은 古代의 뜻이 不同하며, 前者は 征伐의 뜻이고, 後자는 徵兆, 徵驗의 뜻이다.

[5] 活人 - 죽어가고 있는 病人을 治療하여 求하다.

本文의 “五者徧有”는 즉 五陰死脈이 모두 갖추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靈樞·經脈》“五陰氣俱絕”에 對하여 “五陰氣俱絕則目系轉轉則目運, 目運者為志先死. 志先死則運一日半死矣.” 하였고, 《難經·二十四難》“三陰氣俱絕者, 則目眩轉, 目瞑. 目瞑者, 為失志. 失志者, 則志先死. 死卽目瞑也.” 하였다.

《陰陽脈死候》에서 提出한 氣先死, 血先死, 肉先死, 骨先死 및 筋先死의 死徵은 《靈樞·經脈》과 《難經·二十八難》에도 記載되어 있고 “氣先死” 없고 “毛先死” 되어 있다. 따라서 毛·血·肉·筋·骨의 五種類의 組織 및 五行과相互對應하여 肺主皮毛(金), 心主血脈(火), 脾主肌肉(土), 肝主筋(木), 腎主骨(水)의 生理·病理의 關係가 形成되었다.

<表. 1> 五體와 五行의 配合 對照表

出處	五行配合					其他
	木	火	土	金	水	-
《素問·陰陽應象大論》	肝	心	脾	肺	腎	-
	筋	脈	肉	皮毛	骨	-
	筋	血	肉	毛	骨	-
《靈樞·經脈》 《難經·二十四難》	筋	血	肉	-	骨	-
《陰陽脈死候》	筋	血	肉	-	骨	氣

그러나 《陰陽脈死候》에서 提出한 五種類의 組織 中에 血·肉·筋·骨의 四種類만 實質組織이 되고, “氣先死”의 “氣”字는 實質組織이 아니며 五行學說과 서로 對應되지 않는다.

<表. 1>의 說明은 《陰陽脈死候》의 五種類死候를 보면 처음에는 五行學說과 配合되지 않으면서 醫論이 形成되는 過程에서 改正된 하나의 예로 생각된다. 이외에 《陰陽脈死候》《靈樞·經脈》 및 《難經》에 記錄된 五種類死候를 除外하고, 《素問·診要經終論》 및 《靈樞·終始》에도 死候의 文章이 記載되어 있다. 이는 六經의 順序에 根據하여 配列한 것으로 五種類死候說과 差異가 없지만 《陰陽脈死候》의 基礎에서 發展된 것으로 推論할 수 있다.

(原文) 夫流水不腐，戶樞不蠹，以其動。動則實四肢，而虛五臟。五臟虛則玉體利矣。

(語釋) 恒常 흐르는 流水는 썩거나 變質되지 않고, 恒常 문을 열고 닫는 문의 지도리는 벌레가 좀먹어 侵蝕되지 않는다. 그 理由는 끊임없는 運動에 있으며 恒常 運動을 하면 四肢가 充實해지고 五臟이 空虛해 진다. 五臟에

濁氣가 없어 空虛해 지면 身體의 健康에 有益하다.

(校注) [1] 流水不腐 - 乙本에 “流”는 “留”되어 있다. 流와 留는 上古에 音이 같은 音으로 假借하여 通用해 쓴다.

[2] 戶樞 - 樞는 乙本에는 “軸”되어 있고, 軸를 假借하여 樞로 쓴다. 樞는 門의 回轉軸이 되고 또한 문의 지도리이다.

[3] 不蠹 - 實(渡, du) 乙本에는 “蠹”되어 있고, 蠹와 蠹는 上古時代에 音이 모두 同音으로 假借하여 通用한다. 蠹는 좀 별레이다. 《說文·蟲部》“蠹는 木中蟲。”하였고, “不實”는 좀 별레가 좀먹지 않는 것이다.

[4] 動 - 動作, 運動이다. 《素問·五運行大論》“其變動”하였고, 王冰은 “動의 反對가 靜이다” 하였고, 《說文·力部》“動은 作이다” 하였다.

[5] 肢 - 乙本에는 “支”하였는데, 支와 肢는 上古時代에 同音으로 假借해서 通用한다.

[6] 玉體 - 原來의 뜻은 다른 사람에 對한 尊稱이다. 此 文句에서의 意味는 養生을 잘 하는 사람에 對한 尊稱이다.

[7] 利 - 利益, 便利이다. 《春秋繁露·身之

養重于義》 “利는 몸을 기르는 것이다” 하였다.

本文은 身體가 항상 運動을 해서 養生, 保健하는 理致를 설명했다. 이른바 “流水不腐, 戶樞不蠹”의 本文은 先秦時代에 流行하던 二句의 養生 慣用語이다. 漢, 三國時代의 名醫華陀는 弟子 吳晉에게 “人體欲得勞動, 但不當使極耳. 動搖則谷氣得銷, 血脈流通, 痘不得生. 譬如戶樞, 終不朽也.” 하였다 (《後漢書·卷一百二十一華陀列傳》). 人體는 運動 煅煉을 通하여 “實四肢而虛五臟”的 效果와 “玉體利”는 몸을 健康하게 하고 痘을 預방하는 目的에 到達하여 人體의 陰陽表裏에 대해 相互協助하고 統一하는 辨證思想의 表現으로 《靈樞·五色》 “用陰和陽, 用陽和陰”, 《素問·生氣通天論》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및 《素問·至真要大論》 “謹察陰陽所在而調之 以平爲期.” 하였다.

《陰陽脈死候》의 運動理論은 바로 古代醫家들이 人體運動의 實際的인 内在規律을 詳細한 觀察을 통하여 얻어낸 客觀的인 結論이다.

(原文) 夫乘車食肉者 [1], 春秋必□ [2], □則脈爛爛 [3] 而肉死.

(語釋) 此文句는 明確한 解釋이 困難하여 暫缺한다. 그러나 福德을 누리는 貴族階層이 養生에 注意해야 될 사항에 대한 訓戒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校注) [1] 乘車食肉者 - 富裕한 生活을 하는 貴族階層의 人士를 가르키며, “食肉”은 또한 “肉食” 하였고, 貴族과 平民을 나누어서 말한 것이다.

[2] □ - 이 글자는 竹簡의 原文인데 傳世

하는 字書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音과 뜻이 仔細하지 않아서 잠시 빼고 考察을 기다린다.

[3] 脈爛 - “爛”은 乙本에는 “闌”으로 되어 있고 假借하여 通用해 쓰는 글자이다.

(原文) 脈盈而虛之 [1], 虛而實之 [2], 靜則待之 [3].

(語釋) 實脈에 屬하는 痘證은 獻法을 사용하고, 虛脈에 속하는 痘證은 마땅히 補法을 사용하며, 診脈을 할 때는 安靜된 環境과 條件下에서 細心하게 하여야 한다.

(校注) [1] 脈盈而虛之 - 盈字는 充實, 넘친다는 뜻이고, “脈盈”은 實脈, 虛字는 여기서 空虛하게 한다는 뜻으로 治療原則에서 獻法에 該當한다. 그러므로 全體句節은 곧 “實者獻之”의 뜻이다. 예컨대 《素問·三部九候論》 “實則獻之” 하였고, 《靈樞·大惑論》 “盛者獻之” 하였고, 《根結》 “有餘者獻之” 하였다.

[2] 虛而實之 - 虛字는 여기서 脈象이 虛脈 즉 正氣不足 또는 精氣虧損에 屬한다. 예컨대 《素問·玉機眞藏論》 “此謂五虛” 하였고, 王冰은 “虛는 真氣가 脫했음을 뜻한다.” 하였고, 그러므로 “虛則補之” 뜻이다. 예를 들어 《素問·三部九候論》 “虛則補之” 《靈樞·大惑論》 “虛者補之”, 《根結》 “不足者補之” 하였다.

[3] 靜則待之 - 乙本에는 靜字가 “諍” 되어 있다. 靜과 諍은 上古時代에는 諍을 假借하여 靜으로 하였고, ‘靜’字는 安靜의 뜻이며 《素問·生氣通天論》 “靜則多言.” 하였고 王冰은 “靜은 安靜을 이룬다.” 하였다.

여기서 “則”字는 “以”字가 된다. “待”字는 乙本에 “侍”字로 되어 있고, 上古時代에 侍를 假借하여 待로도 하며, “待”字는 ‘기다

리다'의 뜻이다.

本文의 내용은 脈象에 根據하여 治療法則 및 診脈方法을 具體的으로 論述하고 있으며, 診脈할 때는 “靜以待之” 하여 安靜된 環境에서 醫師는 精神을 集中해야 한다. 그리고 《素問·脈要精徹論》“是故持脈有道，虛靜爲寶。”，“診法常以平旦，陰氣未動，陽氣未散，飲食未進，經脈未盛，絡脈調勻，氣血未亂，故乃可診有過之脈”하였다.

III. 本論 및 考察

1. 《陰陽脈死候》의 五死證과 脈診

馬王堆 漢墓 出土 醫書의 《陰陽脈死候》에는 三陰脈病을 論述하며 “□□五死” 하였는데, 五死는 五行과 連繫가 없어 戰國時代로 推定할 수 있으며, 《陰陽脈死候》五死의 論述은 겨우 48 字이며, 이는 《靈樞·經脈》“手太陰氣絕 …… 夕占旦死 (以後 “氣絕”로 間稱)” 등의 354字의 論文으로 發展하였다.

山田¹¹⁾은 “《足臂》의 足太陰脈 뒤에 添加되어 있는 一文과 《陰陽》의 足三陰脈의 文章 및 《陰陽脈死候》를 比較分析하여 經脈의 發見에 있어 足脈이 먼저 發見되고 病의 關係가 상당히 研究된 후에 手의 二陰脈과 肩耳 齒脈이 發見되었고, 手脈보다는 足脈이 重視되었고, 足의 陰脈은 死하는 病과 關係된 死脈, 逆으로 陽脈은 生脈으로 보았다.”하였다.

《陰陽脈死候》“氣先死”內容 中에서 “目環視衰”의 描述을 《靈樞·經脈》에서 “五陰氣俱絕 則目系轉, 轉則目運, 目運者 志先死,

則遠一半死矣.” 하여 “五陰氣絕”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과 《靈樞·終始》에서 “少陰終者 耳聾 百節皆縱 目環絕系 絶系 一日半死”하였다. 三者の “目環視衰”에 對한 내용은 差異가 있어 一人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靈樞·經脈》“氣絕”에서 言及한 “五陰六陽”은 十一脈을 意味하고,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古代 灸經과一致하며, 이는 “氣絕”이 《素問·診要經終論》과 《靈樞·終始》에 比하여 먼저 形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靈樞·經脈》와 《難經·二十四難》手足三陰(手少陰斗手厥陰은 同候로 看做)의 氣絕證候와 “六陽氣絕”의 證候는 “陰陽相離, 膜理發泄, 絶汗乃出”이며, 《素問·診要經終論》, 《靈樞·終始》에서 陽脈의 絶候는 太陽, 少陽, 陽明의 三種類 死候로 區分하였다.

且 《素問·診要經終論》은 《足臂》 《陰陽》의 經脈病候를 言及하였는데, “惕惕如人將捕之”, “時欲怒”, “洒洒時寒”, “太陰終者 …… 善噫善嘔”, “厥陰終者, 中熱嗌乾” 등에서 “慾怒” “中熱”的 二證은 《靈樞·經脈》에는 없고 《陰陽》의 “是僅則病……” 등에서 “慾怒” “中熱”的 二證을 記述하고 있어 《素問·診要經終論》은 《陰陽》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經脈이 形成되는 初期에는 다양한 學派가 있었고, 經脈은 血管을 中心으로 形成되어 ‘經脈’ 및 ‘血管’의 意味가混在되어 있으며⁸⁾, “脈”字는 《足臂》 《陰陽》의 十一脈을 意味한다. 余⁹⁾는 “《靈樞》는 《足臂》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으며, 《素問》에는 《足臂》의 痕迹은 볼 수 없고 《陰陽》 이후의 계속된 著作과 《經脈》을 基本으로 하였다.”하였다.

한편 《足臂》 《陰陽》 經脈의 診斷書인 《脈法》의 脈診部位는 各 經脈 動脈處에서 診斷하는 遍身診法이며, 東漢의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와 唐代의 《千金翼方·脈診大意》 “手足三陰三陽皆有動脈”을 보면 十二經脈 遍身診法은 東漢 以後 《難經》에서 確立된 寸關尺 六部定位脈診法과 함께 戰國에서 唐代까지 醫家들에게 併用되고 共存한 脈診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古代의 遍身診法으로 三部九候診, 十二經脈遍診 및 十二經脈標本診 등이 있으며, 《靈樞·衛氣》의 標本은 經脈의 上下를 診斷하는 診脈處이며, ‘本’은 手足의 腕 踝附近의 脈이 動하는 診脈處이고, ‘標’은 腋 胸 頸部의 ‘天’字의 經穴名의 部位는 標部에 該當한다. 十二經脈의 庫證, 厥證등은 모두 經脈의 上下的 診脈를 利用하여 形成한 經脈病候이다¹⁰⁾.

經脈病候 중 《陰陽》 《經脈》의 “是動則病” 은 脈診을 通해 “脈動” 즉 異常脈이 나타나는 病候이며, 《足臂》 足太陰의 뒤 一文에 “循溫(脈)如三人參春, 不過三日死, 溫(脈)絕如食頃, 不過三日死.” 하여 脈診에 依據하여 死證을 記載하고 있어 古代의 灸經 또한 脈診을

診斷에 利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또, 《素問·診要經終論》, 《靈樞·終始》의 十二經脈의 終絕의 證候는 太陽, 少陽, 陽明, 太陰, 少陰, 厥陰의 六經 終證 및 陽脈의 終絕은 太陽, 少陽, 陽明의 三死證으로 分離되었다. 또한 陽明終의 “其上下經盛, 不仁, 則終矣” 와 少陰終의 “上下不通而終矣” 및 太陰終의 “上下不通, 不通則面黑皮焦而終矣” 의 上下는 診脈處이며 上部·下部의 脈診으로 診斷하였고, 《靈樞·小針解》 “五臟之氣已絕于內者 脉口氣內絕不至” 하여 五臟의 “氣絕”에 脈診으로 確診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素問·氣交變大論》 《素問·至真要大論》의 五臟終絕에 따른 脈診部位의 部位는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이 아니며 十二經脈遍診法과 《靈樞·衛氣》의 十二經標本脈診이다(표 4).

이상을 보면 馬王堆 漢墓 出土 醫書 中 《陰陽脈死候》는 十二經脈 각각의 動脈處를 診斷하는 十二經脈 遍身診法을 運用하였고, 《靈樞·經脈》의 氣絕, 《靈樞·終始》 및 《素問·診要經終論》의 内容은 十二經脈遍診法과 十二經脈標本診을 同시에 運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 《素問·氣交變大論》 《素問·至真要大論》 五臟 終絕의 脈診部位

五運의 太過 《氣交變大論》	五行의 相剋	脈診部位		天氣司天 《至真要大論》
歲木太過	脾土受邪 木剋土	衝陽絕		厥陰司天 風淫所勝
歲火太過	肺金受邪 火剋金	太淵絕	天府絕	少陽司天 火淫所勝
歲土太過	腎水受邪 土剋水	太溪絕		太陰司天 濕淫所勝
歲金太過	肝木受邪 金剋木	太衝絕		陽明司天 燥淫所勝
歲水太過	邪害心火 水剋火	神門絕		太陽司天 寒淫所勝
		尺澤絕		少陰司天 热淫所勝

2. 《陰陽脈死候》의 “五死證”과 臟象學說의 形成淵源

韓醫學은 臟象 및 經絡學說 등의 醫論이 있으며, 經絡學說은 馬王堆 漢墓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을 통하여 《經脈》以前時期의 經脈形成, 發展 및 演變에 對하여 推論할 수 있으며, 《素問》《靈樞》以外에는 臟象과 聯繫되는 古代醫籍이 不足하여 臟象學說의 形成淵源 및 發展過程에 關한 研究와 解釋이 不充分하다.

《素問·五運行大論》“天地陰陽者，不以數推，以象之謂也。”하였고, 吳¹⁵⁾는 “以象求之”的 方法으로 알 수 있다” 하였고, 張¹⁶⁾은 “……故當因象求之，則無不有理存焉” 하여 《內經》‘以象之謂’하는 方法의 妥當性과 當爲性을 論說하였고, 王¹³⁾은 “以象求之”는 《內經》에서 自然界의 變化規律을 觀察하는 主要한 方法이며, 古代 先人們은 ‘仰觀天象，俯察地理’의 長期的이고 實踐的인 觀察을 통하여 外로 表出되는 徵象으로 大自然의 變化規律을 把握하여 ‘象’의 概念으로 概括하여 歸納한 것이다.”하였다.

先秦의 古代 醫家들은 “以象之謂”의 方法으로 天地陰陽의 運行規律을 觀察하는 것뿐만 아니라, 人體의 生理 病理를 설명하는 方法으로 運用하여 《素問·六節臟象論》“藏象何如”하여 ‘藏象’의 用語를 처음 使用하였다. 그리고 張¹⁶⁾은 “臟屬於內 形見于外, 故曰藏象”하였고, 王¹³⁾은 “臟象學說은 古代의 社會條件, 醫學水準 및 粗惡한 解剖知識등으로 生命現象의 眞諦를 解決할 方法이 없었기 때문에 “以象求之”的 方法으로 體表에서 發顯하는 體徵으로 內臟의 活動規律를 追求하는 方法을 導入할 수밖에 없었다.”하였다. 또 臟象學說은 “內外相襲”的 思想이며, 《靈樞·外揣》에는

“日與月焉，水與鏡焉，鼓與響焉。……合而察之，切而驗之，見而得之。……遠者司外揣內，近者司內揣外，……”하여 內外가 相襲되어 內部臟器의 活動이 體表에 反應한다는 생각이며, “司外揣內”는 外部體徵의 變化로 內部臟器를, “司內揣外”는 內部臟器의 變化로 外部體徵을 觀察할 수 있다는 “欲知其內者，當以觀乎外；診于外者，斯以知其內”하는 韓醫學의 思惟方法이다¹⁴⁾.

또한 王¹³⁾은 “‘以象之謂’의 方법은 人體의 生理, 病理 및 人間과 大自然의 關係를 認識하는 主要한 方法이며 ……‘象’은 現象의 基礎에서 高度의 概括的이고 抽象的인 思考로 事物의 本質을 追究하는 것이고, 또 ‘以象之謂’의 方法은 論理的인 思惟方法이며 科學性이 있다.” 하였고, 楊¹⁴⁾은 “先秦의 醫家들은 ‘內外相襲’ 할 수 있는 ‘切而驗之’ ‘見而得之’의 具體的인 方法을 考案하였다. 첫째 ‘切而驗之’의 方法은 《靈樞·經水》“夫八尺之土，皮肉在此，外可度量切循得之”의 方法과 呼應하며, 둘째 ‘見而得之’의 方法은 《靈樞·經水》“其死可解剖而視之，其藏之堅脆，府之大小，谷之多少，脈之長短，血之清濁，氣之多少，十二經之多血少氣 …… 皆有大數.”의 方法과 呼應한다.”하였다.

한편 《陰陽脈死候》에는 人體의 어떤 部分이나 機關의 病態에 對한 것을 繼承하여 身體組織에는 “由此知彼 由表知裏” 할 수 있다는 診斷大法을 提示하였다. 또 《陰陽脈死候》, 《靈樞·經脈》‘氣絕’ 및 《難經·二十四難》의 内容은 外部에서 人體內部의 骨, 肉, 血, 筋, 皮毛와 肝 心 脾 肺 腎의 生理 및 病理를 觀察할 수 있다는 發想의 轉換이다. 또한 《陰陽脈死候》에서 《脉法》“氣上而不下 …… 氣一上一下”의 導氣理論에 依據하여 氣를 중

심으로 内外가 連結되어 外候로서 體內에 相應組織의 變化를 診斷할 수 있다는 臟象體系를 形成하는 過程의 始原으로 생각된다.

《靈樞》《素問》 및 《陰陽脈死候》 등을 보면 “脣”과 “肌肉”의 사이, “舌”, “卵”과 “筋”과 사이에는 必然的인 内在關係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氣絕”과 聯關된 《素問》《靈樞》의 諸篇에서 繼續的인 改訂하는 過程을 거쳐 生理 病理의 概念으로 繼承되고 發展되었다. 예를 들면 《素問·六節臟象論》“心者, 生之本, 其華在面, 其充在血脉” 하여 面部의 色澤을 人體의 血液變化로 認識하여 《陰陽脈死候》“氣先死”와 “面黑”의 關係에 對한 發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氣絕” 중에서 “皮, 毛, 爪”의 病態로 人體內部와 聯關되는 臟腑의 ‘氣’ 變化를 살필 수 있는 理論의 背景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靈樞·經脈》“氣絕”에는 《陰陽脈死候》肉, 骨, 氣, 血, 筋의 配列次序에 變化가 發生하여 氣(皮毛), 血(脈), 肌(肉), 骨(髓), 筋으로 고쳐졌다. 또 “臟”과 連繫되면서 氣는 肺에, 血은 心에, 肉은 脾에, 骨은 腎에, 筋은 肝에 配屬되었다. 또한 五行生剋 및 天干과 結合되는 “氣絕”에서 “手太陰氣絕 則皮毛焦……毛折者 則氣先死 痘篤丁死 火勝金也” 하였고, 《素問·六節臟象論》“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其華在毛 其充在皮 為陽中之太陰 通乎秋氣” 하여 “氣絕”的 基礎下에서 四時, 陰陽이 配合되었다.

余⁹⁾는 “氣絕”은 《陰陽脈死候》의 骨, 肉, 氣, 血, 筋을 五臟과 五行에 配屬한 뒤 ① 肺 - 氣 - 皮毛爪 - 金, ② 心 - 血 - 面 - 火, ③ 脾 - 肉 - 脣人中 - 土, ④ 腎 - 骨 - 齒髮 - 水, ⑤ 肝 - 筋 - 舌, 卵 - 木의 五種類의 模式을 形成하였다. 이는 臟象學

說의 核心的인 理論的 根據가 되었다.”하였다.

그리고 《素問》《靈樞》에는 《陰陽脈死候》와 淵源關係가 있는 論文이 있으며, 《陰陽脈死候》 血, 氣, 骨, 筋, 肉의 五組關係는 《靈樞·經脈》의 “氣絕” 以後에 《靈樞》의 <寒熱病>, <熱病>, <本臟>, <九針> 등에 나타나고, 《素問》의 <六節臟象論>, <宣明五氣論>, <五臟生成論>, <陰陽應象大論>, <金匱真言論> 등에 나타난다.

向後에 《陰陽脈死候》와 《靈樞》, 《素問》의 相互關係 및 《陰陽脈死候》 五種類의 死證이 臟象理論으로 演變되는 年次의인 過程에 對한 研究는 臟象學說의 發展過程理解에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IV. 結論

馬王堆 漢墓 出土 醫書 중 《陰陽脈死候》의 考察을 通하여 ‘五種類의 死證’이 《素問》《靈樞》 및 《難經》‘氣絕’의 內容으로 演變되는 過程, ‘五種類의 死證’에서 運用한 古代의 脈診法 및 臟象學說의 形成淵源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陰陽脈死候》死證의 證候는 ‘以象謂之’의 思惟方法으로 ‘由此知彼 由表知裏’의 方法을 提示하여 外候로서 内部의 特定部位의 生理 病理 및 診斷에 利用하는 理論的 根據로 五行의 相生相剋, 陰陽, 天干 및 臟腑理論을 導入하여 臟象學說이 形成되었다.

2. 《陰陽脈死候》의 死證과 《靈樞·經脈》

의 “氣絕” 은 十二經脈遍診法을 運用하였고, 《靈樞·終始》, 《素問·診要經終論》의 經脈 終絕의 證候는 十二經脈遍診 및 十二經脈標本診을 運用하였다.

向後에 人體의 内部와 外部는 必然的인 内在的인 關係가 있다는 臟象理論을 現代의 科學技術과 醫學理論을 利用하여 檢證하고 臨床에 어떻게 運用이 可能한가에 對한 具體的인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사료된다.

V. 參考文獻

1. 王雪胎. 中國針灸薈萃·現存針灸醫籍卷.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 1-25.
2. 班固 著, 李世烈 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321.
3. 金南一, 印昌植 公역.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 54-55.
4.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 46-48.
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274-320.
6. 魏啓鵬, 胡羽華. 馬王堆漢墓醫書考釋. 成都 : 成都出版社, 1992 : 36-40.
7.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1-592.
8.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 : 122. 137-145. 182-185.
9.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8-13.
10. 鄧良月, 黃龍祥. 中國針灸證治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1995 : 1.
11. 山田慶兒. 新發現中國科學史資料의 研究·論考篇. 京都:明文舍印刷商社. 昭和 60年 : 44.
12.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 181-200.
13. 王厭其. 黃帝內經心悟. 貴陽 : 貴州 科技出版社, 1998 : 139-142.
14. 楊學鵬. 陰陽五行·破譯·詮譯·激活. 北京 : 科學出版社, 1998 : 296-299.
15.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88 : 166-167.
16.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 一中社, 1992 : 173.